

何首烏의 瘧疾 치료 효능에 대한 考察

- 何人飲을 중심으로 -

¹慶熙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 教授 · ²嘉泉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教授
白裕相¹ · 金度勳^{2*}

A Study on the Efficacy of Polygonum multiflorum on Malaria Treatment

- Focused on Herenyin -

Baik Yousang¹ · Kim Do-hoon^{2*}

¹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²Professor at Dept. of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Objectives : As for the effect of Polygonum multiflorum on malaria treatment,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Herenyin use in Korea and the contents mentioned in major Herbs books of the past.

Methods : This study searched, collected and analyzed in the literature and data DB including the contents in herbs books on the treatment of malaria with Polygonum multiflorum, and the contents of various medical books about Herenyin used in Korea, etc.

Results : Since Ming and Qing dynasties, Polygonum multiflorum was used mainly for patients with malaria, whose vitality gets weakened with time. Such effects are described in numerous Herbs books. Herenyin, consisting of major medicinal materials of Polygonum multiflorum and ginseng, was also frequently used in malaria treatment in Korea in late Joseon, rather than in China since it was listed in "Jingyuequanshu".

Conclusions : Based on the mechanism studies of Polygonum multiflorum with malaria treatment effects and the study of malaria treatment medication including Polygonum multiflorum, it is hoped that the development of new therapies for complete eradication of malaria will be made in the future.

Key words : Malaria, Polygonum Multiflorum, Herenyin(何人飲), Jingyuequanshu(景岳全書), Bangyakhappyeon(方藥合編)

* Corresponding author : Kim Do-hoon.

Dept. of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Tel)031-750-5422, E-mail : chulian@gachon.ac.kr

Received(February 7, 2019), Revised(February 13, 2019), Accepted(February 13, 2019)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序論

瘧疾은 갑골문과 『黃帝內經』 등 여러 초기 의학 문헌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인류 역사 상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해 왔으며 지리적으로도 광범위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질병이다. 瘧疾은 대체적으로 Malaria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완전히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2018년 WHO 말라리아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219만 건의 말라리아 발병이 보고되었으며 약 43만 5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¹⁾.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2015년에 와서 말라리아 백신이 처음 선보이기는 하였으나 그 효과가 낮아서 아직 개발 중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말라리아는 WHO 중심의 체계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퇴치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질병 중 하나이다.

현재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artemisinin-based combination therapies(ACT)는 靑蒿 추출물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인데 2015년에 ACT 개발의 공로로 중국의 Tu Youyou가 노벨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말라리아 치료제에 대한 내성이 커지면 새로운 약물의 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오랫동안 瘧疾 치료를 해 온 한의학에서도 새로운 치료제의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다.

瘧疾을 치료하는 효능을 가진 한약재 가운데 何首烏는 역사적으로 늦게 本草書에 기재되었으며 瘧疾의 치료 효능도 明清代 이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조선 말기에 한국의 한의사들에게 알려진 何人飲은 원래 『景岳全書』에 기재된 처방이었으나 이후 중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何首烏의 瘧疾 치료 효능에 대하여 역대 주요 本草書에서 언급한 내용과 함께, 한국에서 何人飲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여 특징을 분석하여 보았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何首烏의 瘧疾 치료 효능과 관련된 연구 논문은 최근에 국내와 중국에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²⁾, 대부분의 何首烏 관련 논문은 기원과 감별, 독성 등에 대한 연구들이다. 현재 CNKI 검색 결과 何首烏의 기원을 고찰한 1편의 논문 내용에서 일부 과거 문헌의 학질 치료 효능이 언급된 사례가 전부이다³⁾.

본 논문에서는 何首烏의 瘧疾 치료에 대한 역대 本草書의 관련 내용, 한국에서 사용된 何人飲에 대한 여러 醫書의 관련 내용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보다 자세한 何首烏의 瘧疾 치료 기전에 대한 연구, 何首烏를 포함하는 瘧疾 치료 처방 전반에 대한 후속 연구 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何首烏 연구들이 기반이 되어 말라리아의 완전한 퇴치를 위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II. 本論

1. 역대 本草書에 기재된 何首烏의 瘧疾 치료 효능

何首烏는 『神農本草經』에는 나오지 않고 『日華子本草』에 처음 기재되는데⁴⁾ 여기에 瘧疾을 치료한다는 언급은 없다. 何首烏의 학질 치료 효능은 明代 蘭茂가 1436년에 雲南 지방의 본초를 설명한 『滇南本草』⁵⁾에 제시되어 있는데, 截瘧의 효능이 있고 痰瘧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痰瘧은 일반적으로 外感보다는 內傷에 의하여 형성된 瘧疾로 보고 있다⁶⁾.

何首烏⁷⁾

味微甘, 性微溫. 古本草注云, 久服延年耐寒, 且味澁, 苦. 入腎爲君, 澁精, 堅腎氣. 止赤白便濁, 縮小便.

2) 王啓明. 何首烏治療瘧疾17例觀察報告. 廣東醫學(祖國醫學版). 1964. 2(4). pp.31-32.

3) 梁鸞, 鄭金生, 趙中振. 何首烏考辨. 中國中藥雜誌. 2016. 41(23). p.4459.

4) 吳越日華子. 日華子本草·蜀本草. 安徽.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98.

5) 중국 최초로 특정 지방의 본초에 대하여 기술한 본초서이다.

6) 姜孝振. 瘧疾의 種類와 病因病機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3. p.44.

7) 蘭茂. 滇南本草. 雲南. 雲南人民出版社. 1976. p.99.

1) WHO. World Malaria Report 2018. Geneva. WHO. 2018. p.42.

入血分, 消痰毒. 治赤白癩風, 瘡疥頑癬, 皮膚瘙癢, 截瘧, 治痰瘧. 【滇南本草】

1590년에 간행된 李時珍의 『本草綱目』에는 何首烏의 학질 치료 효능이 나오지 않고⁸⁾, 1624년에 간행된 倪朱謨의 『本草彙言』에서 久瘧으로 氣가 흠어진 경우에 何首烏를 쓴다고 하였다. 단, 예전의 本草書에서 何首烏가 補精益血한다고 한 효능을 믿을 수 없으며, 따라서 脾의 元氣가 약하여 생긴 瘧疾에는 굳이 苦澁腥劣하여 收澁하는 何首烏를 쓸 필요 없이 甘溫培養하는 약을 쓰면 된다고 하였다.

何首烏⁹⁾

固精斂氣, 截瘧止痢之藥也【開寶】. 此藥味極苦澁【葛小溪稿】, 生用氣寒, 性斂有毒, 制熟氣溫, 無毒, 前人稱爲補精益血, 種嗣延年, 又不可盡信其說. 但觀開寶方所云治瘧瘧, 消癰腫, 滅五痔【氣血毒蟲濕五痔】, 去頭面熱瘡, 蘇腿足軟風, 其作用非補益可知矣. 惟其性善收澁, 其精滑者可固, 痢泄者可止, 久瘧虛氣散漫者可截, 此亦莫非意擬之辭耳. 倘屬元陽不固而精遺, 中氣衰弱而泄痢, 脾元因疲而瘧發不已, 此三證自當以甘溫培養之劑治之, 又不必假此苦澁腥劣, 寒毒損胃之物所取效也. 【本草彙言】

『本草彙言』에서는 973년에 처음 간행된 『開寶本草』를 인용하여 截瘧의 약이라고 하였으나 현재 亡佚된 『開寶本草』의 내용을 일부 전하고 있는 1116년 간행의 『政和經史證類備急本草』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또한 원문 중에서 언급한 開寶方の 효능 중에도 瘧疾을 치료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 원래 처음부터 『開寶本草』에 截瘧의 효능이 기재되어 있었는지는 의심스럽다.

1691년에 간행된 劉若金の 『本草述』에서도 何首烏를 陰이 상한 久瘧에 쓴다고 하였으며¹⁰⁾, 1695년

에 간행된 張璐의 『本經逢源』에서는 何首烏를 生用하면 發散의 효능이 있어서 寒熱이 나타나는 瘧瘧에 사용한다고 하였고 『丹方』을 인용하여 何首烏를 淸약으로 久瘧을 치료하는 처방을 제시하였다¹¹⁾. 1761년에 嚴潔, 施雯, 洪焯 등이 지은 『得配本草』에서도 久瘧을 치료한다고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¹²⁾.

陳念祖는 1803년에 간행한 『神農本草經讀下品·本草附錄』에서 후대에 本草書에 增入된 약 가운데 오직 何首烏의 久瘧과 久痢 치료 효능에 대하여 상세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¹³⁾.

何首烏¹⁴⁾

... 蓋瘧少陽之邪也, 久而不愈, 少陽之氣慣爲瘧邪所侮. 俯首不敢與爭, 任其出入往來, 絕無忌憚, 縱舊邪已退, 而新邪復乘虛入之, 則爲瘧, 縱新邪未入, 而營衛不調之氣, 自襲於少陽之界亦爲瘧. 首烏妙在直入少陽之經, 其氣甚雄, 雄則足以折瘧邪之勢, 其味甚澁, 澁則足以堵瘧邪之路. 邪若未淨者, 佐以柴, 芩, 桔, 半, 邪若已淨者, 佐以參, 朮, 芩, 歸, 一二劑效矣. 設初瘧而即用之, 則閉門逐寇, 其害有不可勝言矣. 久痢亦用之者, 以上氣欠陷, 當於少陽求其生發之氣也, 亦以首烏之味最苦而澁, 苦以堅其腎, 澁以固其脫. 宜溫者與薑, 附同用, 宜涼者與芩, 連同用, 亦捷法也. 【神

身軟, 膝痛【腰身軟, 膝痛, 不能行步, 正是骨軟風】. 并冷氣心痛, 陰傷久瘧, 益血氣, 黑髮發, 悅顏色, 久服長筋骨, 益精髓, 延年不老, 令人有子, 亦治婦人產後及帶下諸患.

- 11) 張璐. 本經逢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15 : 何首烏... 生則性兼發散, 主寒熱瘧疾, 及癰疽背瘡皆用之... 丹方治久瘧, 用生薑, 何首烏 一兩, 柴胡 三錢, 黑豆 隨年數加減. 煎成露一宿, 清晨熱服, 若夜瘧尤效, 乃散中寓收, 補中寓散之法.
- 12) 施雯, 嚴潔, 洪焯. 得配本草(中國醫學大成續集8).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295-297 : 何首烏, 茯苓爲之使. 忌蔥, 蒜, 蘿蔔, 諸血, 無鱗魚, 又忌與燥熱藥同用. 伏朱砂. 苦澁, 微溫. 入足厥陰, 少陰經血分. 養血補肝, 固精益腎. 健筋骨, 烏髭髮, 除腹冷, 祛腸風, 療久瘧, 止久痢, 瀉肝風, 消瘰癧癰腫. 治皮膚痛, 薑汁調敷, 文火熨之, 三次自愈. 配胡麻, 治癩風. 佐牛膝, 治軟風. 研末, 津調, 封臍中, 止自汗. 和艾葉煎濃汁, 洗疥癬.
- 13) 陳念祖. 神農本草經讀. 福建. 福建科學技術出版社. 2007. p.552 : 陳修園曰, 後世增入藥品, 餘多置之而弗論, 唯何首烏於久瘧久痢多取用之.
- 14) 陳念祖. 神農本草經讀. 福建. 福建科學技術出版社. 2007. pp.552-553.

8) 李時珍. 本草綱目(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p.1288-1291.

9) 倪朱謨. 本草彙言.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5. p.428.

10) 劉若金. 本草述校注.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5. pp.354-355 : 何首烏... 諸本草主治. 瘰癧, 消癰腫, 療頭面風瘡, 瀉肝風, 亦療積年勞瘦, 痰癬, 風虛敗劣, 骨軟風, 腰

農本草經讀】

陳念祖는 瘧疾을 전적으로 少陽의 병으로 규정하고, 少陽之氣의 약함을 틈타 新舊의 瘧邪가 出入往來하여 發作이 일어나는데 新邪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라도 營衛가 不調한 것이 원인이 되어 瘧疾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何首烏가 少陽經으로 바로 들어가 강한 氣로 瘧邪의 세력을 제압하고 澁한 味로 瘧邪의 진로를 막으니, 初瘧에는 미리 문을 닫고 사기를 쫓는 격이므로 쓸 수가 없다고 하였다. 瘧邪가 아직 남아있을 경우에는 柴胡, 茯苓, 桔梗, 半夏 등을 佐藥으로 쓰고 없어도 人蔘, 白朮, 黃芪, 當歸 등을 佐藥을 쓴다고 하였다. 何首烏로 久痢, 疽瘡, 癩癧 등을 치료하는 효능도 역시 少陽經으로 들어가는 성질로 설명하였다¹⁵⁾. 그런데 陳念祖는 나아가 이전 본초서에서 何首烏를 上品의 補藥으로 보고 補養하고 滋潤한다고 한 것은 잘못으로, 李時珍이 『本草綱目』에서 何首烏의 성질이 溫하고 不寒不燥하여 地黃, 天門冬보다 효과가 낫다고 한 주장¹⁶⁾을 크게 비판하였다.

若謂首烏滋陰補腎, 能烏鬚髮, 益氣血, 悅顏色, 長筋骨, 益精髓, 延年, 皆耳食之誤也. 凡物之能滋潤者, 必其脂液之多也, 物之能補養者, 必氣味和也. 試問, 澁滯如首烏, 何以能滋. 苦劣如首烏, 何以能補. 今之醫輩竟奉爲補藥上品者, 蓋惑於李時珍綱目不寒不燥, 功居地黃之上之說也. 餘二十年來, 目擊受害者比比. 以醫爲蒼生之司命, 不敢避好辯之名也¹⁷⁾. 【神農本草經讀】

15) 陳念祖. 神農本草經讀. 福建. 福建科學技術出版社. 2007. p.553 : 此外, 如疽瘡五疔之病, 則取其蔓延則通經絡, 癩之病, 則取其入少陽之經. 精滑泄瀉及崩漏之病, 則取其澁以固脫.

16) 李時珍. 本草綱目(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1290 : 何首烏, 足厥陰少陰藥也. 白者入氣分, 赤者入血分. 腎主閉藏, 肝主疏泄. 此物氣溫, 味苦澁. 苦補腎, 溫補肝, 澁能收斂精氣, 所以能養血益肝, 固精益腎, 健筋骨, 烏鬚髮, 爲滋補良藥. 不寒不燥, 功在地黃天門冬諸藥之上. 氣血太和則風虛癰腫癩瘡諸疾可知矣.

17) 陳念祖. 神農本草經讀. 福建. 福建科學技術出版社. 2007. p.553.

1840년에 간행된 姚瀾의 『本草分經』¹⁸⁾과 역시 19세기 후반에 간행된 凌奐의 『本草害利肝部藥除補肝次將』¹⁹⁾에서도 何首烏의 학질 치료 효능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1904년에 간행된 周巖의 『本草思辨錄』에서는 『神農本草經讀』에서 陳念祖가 何首烏의 성질을 지나치게 苦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다시 비판하고 闔辟의 개념으로 苦澁과 溫補하는 효능을 균형 있게 설명하였다.

何首烏²⁰⁾

... 何首烏種分赤白, 故氣血兼益. 藤夜交晝疏, 故具闔辟之長. 味濃入腎, 澁入肝, 苦則堅, 溫則補. 陳修園但知其爲苦澁, 而於益氣血具闔辟之所以然, 則未之見, 其必有施之不當而爲所誤者矣. 【本草思辨錄】

즉, 陳念祖가 何首烏를 써서 久瘧과 久痢를 멎게 한다고 한 것을 맞으나 少陽 하나로만 성질을 귀결하고서 肝腎을 補하는 효능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²¹⁾.

2. 何人飲의 瘧疾 치료 효능

何人飲은 1624년에 간행된 『景岳全書新方八陣因陣』에 처음 나오는 처방으로 氣血이 모두 허한 久瘧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何首烏와 함께 人蔘을 同량의 均약으로 쓰고 있다.

何人飲²²⁾

18) 姚瀾. 本草分經.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pp.116-117 : 何首烏, 苦甘溫, 補益肝腎, 澁精氣養血, 化虛痰, 烏鬚髮, 消癰腫, 療瘧痢, 補陰而不滯不寒, 強陽而不燥不熱, 爲調和氣血之聖藥, 久服延年, 製用.

19) 凌奐. 本草害利.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2. p.21 : 何首烏... 【利】 苦甘澁微溫, 入肝腎, 收精氣, 補真陰, 強筋益髓, 壯陽事, 爲滋補良藥. 養血祛風, 虛勞瘦, 痿弱, 癩癧, 補肝, 瘧家要藥. 補益肝腎, 調和氣血, 澁氣化虛痰.

20) 周巖. 本草思辨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71.

21) 周巖. 本草思辨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71 : 修園於首烏能止久瘧久痢則疑之, 而一歸於少陽, 則知猶未知. 夫久瘧不止, 勢必損及於肝, 肝病腎亦病. 腎者三陰之樞也, 欲樞轉而止瘧, 自當補肝與腎. 肝主疏泄, 久痢則疏泄太過, 腎亦失封之職, 亦必以補肝腎爲要. 修園既以首烏苦澁而短之, 安得更有直折之威生發之氣如彼云云者, 稱驥以力而不免於鹽車之辱. 此可爲太息者也.

截癩如神. 凡氣血俱虛, 久癩不止, 或急欲取效者, 宜此主之.

何首烏自三錢以至一兩隨輕重用之, 當歸二三錢, 人參三五錢或一兩隨宜, 陳皮二三錢大虛者不必用, 煨生薑三片多寒者用三五錢.

水二鍾, 煎八分, 於發前二, 三時, 溫服之. 若善飲者, 以酒一鍾, 浸一宿, 次早加水一鍾煎服亦妙. 再煎不必用酒. 【景岳全書】

그런데 何首烏의 癩疾 치료 효능을 처음 기술하고 있는 『滇南本草』(1436년)에는 何首烏를 軍藥으로 하여 痰癩과, 寒熱往來의 증상이 나타나는 虛癩을 치료하는 經驗方을 기재하고 있다. 모두 약재를 달인 후 하룻밤을 지낸 후 복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何首烏²³⁾

... 又方, 治痰癩.

何首烏, 黑豆, 煎露一宿, 次早煨熱服效²⁴⁾.

又方, 治寒熱往來虛癩.

法半夏一錢, 白茯苓三錢²⁵⁾, 何首烏一錢炙, 生薑一片, 水煎露一宿, 次早煨熱服. 此方治癩, 以七天後可用. 中氣虛者良效. 若初病風邪未消, 痰火不清, 飲食不消²⁶⁾, 忌用. 【滇南本草】

또한 『景岳全書』보다 앞서 1584년에 간행된 孫一奎의 『赤水玄珠』에는 久癩을 치료하는 何首烏丸²⁷⁾과 四聖飲²⁸⁾이 기재되어 있다. 何首烏丸은 何

首烏末을 鱉血과 섞어서 丸으로 만든 것으로 발작이 발하기 직전 五更에 복용토록 하였고, 四聖飲은 何首烏와 함께 白芷, 靑皮, 陳皮 등을 함께 水煎하여 복용하는 처방이다. 1624년에 간행된 『本草彙言』에서도 癩邪가 陰分에 있어서 오랫동안 낫지 않는 학질에 何首烏를 軍藥으로 치료하는 처방을 제시하였는데²⁹⁾, 何首烏와 함께 鱉甲, 牛膝, 陳皮, 靑皮 등을 쓰는 처방이며 虛證이 심하면 人蔘 三錢을 가하라고 하였다.

1695년에 간행된 『本經逢源』에서는 『丹方』을 인용하여 何首烏를 軍藥으로 하고 柴胡, 黑豆과 함께 久癩을 치료하는 처방을 제시하였는데³⁰⁾, 이 『丹方』을 현재는 고증할 수 없다. 참고로 1707년에 錢峻이 간행한 『經驗丹方彙編』에서 학질에 何首烏末을 쓰는 처방³¹⁾과 截癩에 赤白生首烏를 當歸, 靑皮, 薑皮과 함께 쓰는 처방³²⁾을 기재한 것이 있다.

『景岳全書』의 何人飲은 이후의 중국 醫書에서 동일한 명칭의 처방이 보이지 않으므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中華醫方精選辭典』에서도 동일한 명칭의 처방이 기재된 醫書는 『景岳全書』가 유일하며³³⁾, 何人飲과 藥물 구성이 유사한 처방도 기타 醫書에서 찾기 어렵다.

그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1884년에 간행된 黃度淵의 『方藥合編』에 何人飲이 休癩飲³⁴⁾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22) 張介賓. 懸吐註釋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984.

23) 蘭茂. 滇南本草. 雲南. 雲南人民出版社. 1976. p.99.

24) 何首烏, 黑豆, 煎露一宿, 次早煨熱服效: 雲南叢書本에는 “何首烏, 黑汁煎, 每用三錢”으로 되어 있다.

25) 三錢: 雲南叢書本에는 “二錢”으로 되어 있다.

26) 痰火不清, 飲食不消: 昆明務本堂本에는 “痰食不清, 食之不改散”으로 되어 있다.

27) 孫一奎. 赤水玄珠(四庫全書34). 서울. 大星出版社. 1995. p.894: 何首烏丸, 治久癩, 陰虛熱多寒少, 以此補而截之. 何首烏爲末, 鱉血爲丸, 黃荳大, 辰砂爲衣, 臨發五更, 白湯送下二丸.

28) 孫一奎. 赤水玄珠(四庫全書34). 서울. 大星出版社. 1995. p.275: 四聖飲, 治久癩. 何首烏, 白芷, 靑皮, 陳皮, 水煎空心服.

29) 倪朱謨. 本草彙言.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5. p.430: 治癩邪在陰分久不愈. 用何首烏一兩, 鱉甲炙, 牛膝, 陳皮, 靑皮各四錢, 當歸, 白朮各三錢, 虛甚加人蔘三錢, 水煎服.

30) 張璠. 本經逢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15: 何首烏... 生則性兼發散, 主寒熱痰癩, 及癰疽背瘡皆用之... 丹方治久癩, 用生薑, 何首烏一兩, 柴胡三錢, 黑豆隨年數加減. 煎成露一宿, 清晨熱服, 若夜癩尤效, 乃散中寓收, 補中寓散之法.

31) 錢峻. 經驗丹方彙編.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8. p.17: 單方... 癩疾, 黑礬爲末, 面和丸, 塞鼻內愈. 制首烏末日服三錢, 數日效. 常山末二錢[酒炒透], 烏梅肉四枚, 研丸服立止, 忌口.

32) 錢峻. 經驗丹方彙編.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8. p.48: 癩疾... 絕癩... 又方[二十日後神效], 歸身, 靑皮, 赤生首烏, 白生首烏, 老姜皮 各三錢. 河水井水各一碗煎八分, 露一夜, 臨來日五更熱服即愈[經驗方].

33) 彭懷仁主編. 中華醫方精選辭典(上). 上海. 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8. p.1083.

上統六十, 何人飲. 截瘧如神, 凡氣血久虛, 久瘧不止. 或酒水相半煎. 何首烏二錢至一兩, 人參三五錢或一兩, 當歸二三錢, 陳皮大虛不必用二三錢, 煨姜三片多寒至三五錢³⁵⁾. 【方藥合編】

『方藥合編』에 기재된 何人飲은 『景岳全書』의 그것과 약물 구성 및 용량에 차이가 없으며 복용법도 유사하다. 단, 人參을 배열 순서상 何首烏와 나란히 두었다. 休瘧飲도 역시 何首烏를 군약으로 하고 人參, 白朮, 當歸, 甘草를 함께 쓰는 처방인데 『景岳全書新方八陣·補陣』에 나온다³⁶⁾. 『方藥合編』의 休瘧飲도 『景岳全書』의 그것과 내용이 동일한데, 『景岳全書』에서는 더불어 休瘧飲의 加減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³⁷⁾. 참고로 『景岳全書新方八陣·因陣』에는 何首烏를 군약으로 하는 追瘧飲³⁸⁾이 수록되어 있는데 氣血이 아직 쇠하지 않은 경우에 쓰는 처방이다³⁹⁾.

『方藥合編』과 동시대인 1901년에 간행된 李濟馬

의 『東醫壽世保元』을 보면, 白何烏理中湯에 대한 東武의 自注에서 人參과 何首烏의 효능을 비교한 후 古方인 何人飲에서 白何首烏를 사용하여 瘧疾을 치료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⁴⁰⁾. 또한 石谷 李圭峻의 제자인 無爲堂 李元世가, 石谷의 처방을 모아 편집한 『新方新編』, 그리고 1906년에 간행된 『醫鑑重磨』에 고금의 처방을 추가한 『醫鑑重磨百病總括附方藥編』에도 何首烏를 군약으로 하는 何人飲이 포함되어 있다.

『新方新編·瘧門』을 살펴보면 『東醫寶鑑·瘧』에 나오는 瘧疾의 병리기전과 치법을 인용한 후⁴¹⁾, 何人飲을 기재하고 있다.

何人飲⁴²⁾

何首烏三錢, 人參, 附子, 草果各二錢, 常山, 甘草各一錢, 薑五片, 寒多三五錢.

治瘧. 服藥法, 煎藥必露天一宿, 發作日五更時爲好, 發作當日夜三更一服. 【新方新編】

이 何人飲은 『景岳全書』의 何人飲에서 當歸, 陳皮가 빠지고 附子, 草果, 常山, 甘草가 추가되어 있으며, 복용법에서 처방을 달여 하루를 묵힌 후 發作日 五更時에 복용하도록 한 점도 다르다. 그런데 『新方新編·瘧門』에는 何首烏를 사용하여 학질을 치료하는 如神湯⁴³⁾, 烏龜湯⁴⁴⁾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

34) 黃度淵. 方藥合編. 서울. 杏林出版社. 1986. pp.163-164 : 上統五十九, 休瘧飲. 治瘧最妙, 汗散既多, 元氣不復. 或陰陽水各一種煎服, 露一宿次早溫服. 飯後食遠再服. 何首烏五錢, 人參, 白朮, 當歸各三四錢, 炙甘草八分.

35) 黃度淵. 方藥合編. 서울. 杏林出版社. 1986. p.164.

36) 張介賓. 玄菟註釋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p.962-963 : 休瘧飲, 此止瘧最妙之劑也. 若汗散既多, 元氣不復, 或以衰老, 或以弱質, 而瘧有不能止者, 俱宜用此, 此化暴善後之第一方也. 其有他證, 加減俱宜如法. 人參, 白朮炒, 當歸各三四錢, 何首烏制五錢, 炙甘草八分. 水一鍾半, 煎七分, 食遠服. 渣再煎. 或用陰陽水各一鍾, 煎一鍾, 亦如之. 俱露一宿, 次早溫服一鍾, 飯後食遠再服一鍾.

37) 張介賓. 玄菟註釋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p.962-963 : 如陽虛多寒, 宜溫中散寒者, 加干薑, 肉桂之類, 甚者, 或加制附子, 如陰虛多熱, 煩渴喜冷, 宜滋陰清火者, 加麥冬, 生地, 芍藥, 甚者 加知母, 或加黃芩, 如腎陰不足, 水不制火, 虛煩虛餒, 腰痠腳軟, 或脾虛痞悶者, 加熱地, 枸杞, 山藥, 杜仲之類, 以滋脾腎之真陰, 如邪有未淨而留連難愈者, 於此方加柴胡, 麻黃, 細辛, 紫蘇之屬, 自無不可, 如氣血多滯者, 或用酒水各一鍾, 煎服, 或服藥後飲酒數杯, 亦可.

38) 張介賓. 玄菟註釋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985.

39) 張介賓. 玄菟註釋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985 : 追瘧飲, 截瘧甚佳. 凡血氣未衰, 屢散之後, 而瘧有不止者, 用此截之. 已經屢驗. 何首烏一兩制, 當歸, 甘草, 半夏, 青皮, 陳皮, 柴胡各三錢.

右用井水河水各一鍾, 煎一鍾, 亦如之, 相同露一宿. 次早溫服一鍾, 飯後食遠, 再服一鍾.

40) 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 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1997. p.464 : 白何烏理中湯, 白何首烏, 白朮炒, 白芍藥微炒, 桂枝, 乾薑炮各二錢, 陳皮, 甘草炙各一錢. 有人參則用人參, 無人參則用白何首烏. 白何首烏與人參, 性味相近而清越之力不及, 溫補之力過之 不無異同之處, 險病危證, 人參二錢以上, 不可全恃白何首烏代用. 古方經驗不多, 藥材生疎故也. 然此一味必不可遺棄於補藥中, 而古方何人飲用白何首烏五錢, 治瘧病.

41) 李元世. 新方新編. 서울. 大星醫學社. 2001. p.51 : 夏暑汗不出者, 秋爲風瘧也. 暑濕熱閉藏而不發泄邪氣內行, 至秋而爲瘧也. 瘧之寒熱不止者, 根在故也. 根者, 曰飲曰水曰敗血也. 惟辭爲瘧母, 因敗血爲暑熱之毒, 爲能寒熱也. 飲與水皆生寒熱也. 治法逐水消飲解辭也. 瘧疾多用常山者, 能逐水破辭故也.

42) 李元世. 新方新編. 서울. 大星醫學社. 2001. p.51.

43) 李元世. 新方新編. 서울. 大星醫學社. 2001. p.51 : 如神湯, 何首烏, 人參各三錢, 附子, 草果, 鼈甲, 柴胡各二錢, 常山, 蒼朮, 當歸, 橘皮各一錢, 甘草五分, 薑一錢. 治老瘧.

44) 李元世. 新方新編. 서울. 大星醫學社. 2001. pp.51-52 :

으며, 상호 약물 구성이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如神湯은 『新方新編』의 何人飲에 鼈甲, 柴胡, 蒼朮, 當歸, 陳皮가 추가된 것으로 老瘧을 치료하며, 烏鼈湯은 같은 何人飲에 鼈甲 하나만 추가된 것으로 오래된 瘧癘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추가된 약물의 구성은, 같은 편에 기재된 瘧疾 치료방인 果附湯⁴⁵⁾⁴⁶⁾이 附子, 草果, 鼈甲, 常山, 甘草 등으로 구성된 것과 매우 유사하므로, 何人飲과 果附湯의 합方으로부터 如神湯, 烏鼈湯 등이 파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李元世의 『醫鑑重磨百病總括附方藥編瘧瘧門』⁴⁷⁾에서는 『東醫實鑑瘧瘧』의 내용을 인용한 후⁴⁸⁾ 果附湯, 人蔘截瘧飲, 何人飲, 如神湯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果附湯⁴⁹⁾ 한 종류와 人蔘截瘧飲⁵⁰⁾, 何人飲⁵¹⁾ 등은 기존 醫書의 처방을 인용한 것이며, 다른 한 종류의 果附湯⁵²⁾과 如神湯⁵³⁾은

『新方新編』의 그것과 동일하다. 이 果附湯에 ‘石谷’이라는 출전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이 두 처방은 모두 石谷의 고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III. 考察

何首烏는 『日華子本草』에 처음 기재된 약제로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에서도 생소하여 경험이 많지 않은 약제라고 언급하고 있다⁵⁴⁾. 또한 瘧疾에 대한 효능도 『滇南本草』(1436년)에서 처음 언급하고 있는데 주로 內傷으로 발생하는 痰瘧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本草綱目』 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何首烏의 主治는 癩癧, 癰腫, 風疹, 痔疾, 帶下 등을 질환을 치료하는 것과 氣血 및 精髓를 補하여 長筋骨, 黑髮發, 有子, 延年不老 등의 보익하는 효능으로 나뉜다⁵⁵⁾.

이후 『本草彙言』(1624년)부터 여러 本草書에서는 주로 久瘧에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병이 오래되어 正氣가 허해진 상태에서 사기가 잠복하여 발작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며 증상은 初瘧보다 심하지 않은 久瘧 또는 瘧瘧에 사용하는 것이다. 『本草述』(1691년)에서는 구체적으로 陰을 傷한 久瘧에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陰은 내부의 精氣를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本草綱目』에서 말한 것과 같이 何首烏의 歸經이 肝, 腎인 것도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何首烏가 瘧疾을 치료함에 있어서 실제 精氣를 補하는 기전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倪朱謨는 『本草彙言』에서 何首烏가 補精益血한다고 한 효능을 믿을 수 없다고 하였고, 陳念祖도 『神農本草經讀』(1803년)에서 何首烏를 上品의 補藥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며 李時珍의 『本草綱目』에서 何首烏의 효능이 地黃보다 낫다고 한 주장을 비판하였다. 반면에 周巖의 『本草思辨錄』(1904년)에서는 陳念祖가 何首烏의 성질을

烏鼈湯, 何首烏, 鼈甲, 人蔘, 附子, 草果各二錢, 常山, 甘草各一錢. 治瘧癘, 四十年來, 夏時發作痛, 秋冬或間日作, 或四五日一作, 不知而如此辛苦.

- 45) 李元世. 新方新編. 서울. 大星醫學社. 2001. p.51 : 果附湯, 附子, 草果, 鼈甲各二錢, 常山, 乾薑, 甘草各一錢. 治久瘧.
- 46) 大星醫學社本에는 ‘黑附湯’으로 되어 있으나 ‘果附湯’의 誤記이다.
- 47) 李元世. 醫鑑重磨百病總括. 서울. 大星醫學社. 2001. pp.275-277.
- 48) 李元世. 醫鑑重磨百病總括. 서울. 大星醫學社. 2001. pp.275-276.
- 49) 李元世. 醫鑑重磨百病總括. 서울. 大星醫學社. 2001. p.276 : 果附湯, 草果, 附子各二錢半, 薑七片, 棗二枚. 治濕痰瘧, 面青寒熱[入門].
- 50) 李元世. 醫鑑重磨百病總括. 서울. 大星醫學社. 2001. p.277 : 人蔘截瘧飲, 人蔘, 白朮, 白茯苓, 當歸, 青皮, 厚朴, 柴胡, 黃芩, 知母, 常山, 草果, 鱉甲醋炙各八分, 桂枝, 甘草各三分. 露一宿, 臨發日五更, 空心服. 治一切瘧, 如此服[回春].
- 51) 李元世. 醫鑑重磨百病總括. 서울. 大星醫學社. 2001. p.277 : 何人飲, 何首烏三錢至一兩, 人蔘三錢至一兩, 當歸二三錢, 陳皮一二錢, 煨薑五片寒多三五錢. 治瘧疾, 氣血虛久瘧, 截瘧如神, 或酒水相半煎服, 如前法[景岳].
- 52) 李元世. 醫鑑重磨百病總括. 서울. 大星醫學社. 2001. p.277 : 果附湯, 附子, 草果, 鱉甲各二錢, 常山, 乾薑, 甘草各一錢. 治久瘧[石谷].
- 53) 李元世. 醫鑑重磨百病總括. 서울. 大星醫學社. 2001. p.277 : 如神湯, 何首烏, 人蔘各三錢, 附子, 草果, 鱉甲, 柴胡各二錢, 常山, 當歸, 蒼朮, 橘皮各一錢, 甘草五分, 生薑一錢. 治老瘧, 服法一切臨發日五更, 露一宿, 亦好.

- 54) 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 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1997. p.464 : 古方經驗不多, 藥材生疎故也. 然此一味必不可遺棄於補藥中, 而古方何人飲用白何首烏五錢, 治瘧病.
- 55) 李時珍. 本草綱目(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p.1288-1291.

지나치게 苦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다시 비판하였다. 이러한 논란은 특히 何首烏의 藥質 效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何首烏가 처음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약물인데다 초기의 『日華子本草』나 何首烏의 전설을 담아 813년에 李翺가 지은 『何首烏傳』 등에서 何首烏를 복용하면 자식을 가지거나 延年한다는 효능이 지나치게 부각된 결과로 보인다. 이후 『本草綱目』 등 주요 本草書에서 養血益肝, 固精益腎, 健筋骨, 烏髭發 등의 효능을 가진 滋補의 良藥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성질의 苦澁하여 精氣를 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여러 문헌에서 계속 제기되어 왔다.

何首烏와 人蔘을 均약으로 하여 瘧疾 치료에 사용하는 何人飲은 『景岳全書新方八陣』의 因陣에 나오는데, 역시 氣血이 俱虛한 久癩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因陣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단순한 虛證이 아니라 숨어 있는 병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동시에 여러 원인 혼재하는 경우에 사용함을 알 수 있으며⁵⁶⁾, 補陣에 포함되어 다양한 加減法을 가지고 있는 休癩飲과 대비된다. 비록 人蔘을 같이 쓰는 것은 아니나 何首烏의 瘧疾 치료 효능을 처음 기술한 『滇南本草』에도 何首烏를 사용하여 藥質을 치료한 經驗方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景岳全書』보다 앞선 孫一奎의 『赤水玄珠』에도 何首烏末을 鱉血과 섞어서 丸으로 복용하는 何首烏丸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本草彙言』에도 何首烏와 함께 鱉甲, 牛膝, 陳皮, 靑皮 등을 쓰는 처방이 있으며 虛證이 심하면 人蔘 三錢을 가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何人飲은 『景岳全書』 이후 중국 의서에는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오히려 조선 말기의 의서에 기재되어 임상에 사용되었다. 黃度淵의 『方藥合編』

(1884년)에는 『景岳全書』의 何人飲과 休癩飲이 수록되어 있으며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1901년)에서도 何人飲을 언급하며 瘧疾 치료에 何首烏를 五錢 사용한 예를 들었다. 何首烏의 용량을 五錢으로 확정하여 사용한 것은 休癩飲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石谷 李圭峻의 처방을 모은 『新方新編』과 『醫鑑重磨百病總括附方藥編』를 살펴보면 石谷이 『景岳全書』의 何人飲과 다른 동명의 何人飲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石谷이 사용한 何人飲은 『景岳全書』의 何人飲에서 當歸, 陳皮가 빠지고 附子, 草果, 常山, 甘草가 추가된 것이다. 石谷은 또한 烏龍湯, 如神湯, 果附湯 등도 사용하였는데, 烏龍湯은 자신의 何人飲에 鱉甲만을 추가한 것이며, 如神湯은 같은 처방에 鱉甲, 柴胡, 蒼朮, 當歸, 陳皮 등을 추가한 것이며, 果附湯은 何首烏 없이 附子, 草果, 鱉甲, 常山, 甘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石谷의 何人飲은 곧 景岳의 何人飲에서 當歸, 陳皮를 빼고 烏龍湯, 果附湯 등을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鱉甲類를 何首烏와 함께 사용하는 예는 이미 『赤水玄珠』, 『本草彙言』 등에 보인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何首烏와 人蔘 모두 少陰人의 正氣를 보하는 약으로 보았고 何首烏로 人蔘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국에서는 『本草彙言』과 같은 일부 문헌에서 何首烏가 포함된 瘧疾 치료 처방에 人蔘을 추가하여 사용한 경우가 있으나 何首烏와 人蔘을 함께 均약으로 하여 사용한 경우는 없었다.

景岳의 何人飲을 黃度淵이 조선 말기에 한국에 소개한 이후, 李圭峻은 何首烏와 人蔘을 均약으로 하는 景岳의 何人飲을 여러 처방을 결합하여 다양하게 운영하였다. 또한 李濟馬는 자신의 체질 이론에 입각하여 何首烏를 虛證의 瘧疾을 치료하는 少陰人 補藥으로 인식하고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과 달리 조선 말기에 何人飲의 사용된 이유를 살펴보면, 黃度淵이 『景岳全書』의 내용을 자신의 저서에 선택적으로 수용한 경향이 많았는데 이는 하나의 학파로서 수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조선의학이 전통적 핵심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역동적으로 변화를 피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⁵⁷⁾.

56) 張介賓. 懸吐註釋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955 : 一, 因方之制, 因其可因者也. 凡病有相同者, 皆可按證而用之, 是謂因方. 如癰毒之起, 腫可散也, 蛇蟲之患, 毒可解也, 湯火傷其肌膚, 熱可散也, 跌打傷其筋骨, 斷可續也, 凡此之類, 皆因證而可藥者也. 然因中有不可因者, 又在乎證同而因不同耳. 蓋人之虛實寒熱, 各有不齊, 表裏陰陽, 治當分類. 故有宜於此而不宜於彼者, 有同於表而不同於裏者. 所以病雖相類, 而但涉內傷者, 便當於血氣中, 酌其可否之因, 不可謂因方之類, 盡可因之而用也. 因之爲用, 有因標者, 有因本者, 勿因此因字而誤認因方之義.

또한 李圭峻이 何人飲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사용한 것은, 본인의 扶陽論을 바탕으로 明代 溫補學派인 張景岳의 처방으로서 何首烏와 人蔘을 군약으로 하는 何人飲을 폭넓게 활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明清代 이후로 何首烏가 精氣를 보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처럼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 이유도 실제 임상에서 何首烏의 체질적 적합성에 따라 효능의 극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李濟馬가 何首烏를 가리켜 補藥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한 이유는 人蔘과 함께 소음인의 正氣를 회복시킨다고 본 때문이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癆疾을 치료하는 何人飲을 언급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19세기 조선의학에서 何人飲과 何首烏를 활용하였던 것은, 당시의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새로운 이론이나 치료 기술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았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IV. 結論

본 논문에서는 何首烏의 癆疾 치료 효능에 대하여 역대 주요 本草書에 기재된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한국에서 자주 사용된, 『景岳全書』의 何人飲을 중심으로 何首烏를 군약으로 하는 癆疾 치료 처방들을 살펴보았다. 요약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何首烏의 癆疾에 대한 효능은 1436년에 간행된 蘭茂의 『滇南本草』에서 처음 언급하고 있는데 痰癆를 치료한다고 하였고, 1624년 간행된 倪朱謨의 『本草彙言』 이후의 여러 本草書에서는 주로 久癆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효능은 清代에 이르러 모든 本草書에 전반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상당수의 문헌에서 다루기 시작하였다.

2. 何首烏의 癆疾 치료 효능이 精氣를 補하는 것

57) 이진철. 醫宗損益을 통해 살펴본 황도연의 의학사상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2017. p.101.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여, 『本草彙言』과 1803년에 간행된 陳念祖의 『神農本草經讀』에서 何首烏를 上品의 補藥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고, 반면에 1904년에 간행된 周巖의 『本草思辨錄』에서는 陳念祖의 견해를 다시 비판하였다.

3. 何首烏와 人蔘을 군약으로 하여 학질을 치료하는 何人飲은 『景岳全書新方八陣』에 나오는데 역시 氣血이 俱虛한 久癆에 사용하였다. 참고로 『滇南本草』, 『本草彙言』 등에도 何首烏를 사용하여 학질을 치료한 經驗方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孫一奎의 『赤水玄珠』에도 何首烏를 위주로 하는 何首烏丸이 포함되어 있다.

4. 何人飲은 『景岳全書』 이후 중국 의서에는 전혀 기재되지 않고, 조선 말기 黃度淵의 『方藥合編』에 수록되어 있으며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에서도 何人飲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石谷 李圭峻의 처방을 모은 『新方新編』과 『醫鑑重磨百病總括附方藥編』에도 何人飲이 포함되어 있는데 『景岳全書』의 何人飲과 약물 구성이 다르다. 石谷의 何人飲은 烏龜湯, 果附湯 등을 결합한 것이며 何人飲의 變方인 如神湯도 사용하였다.

5. 景岳의 何人飲을 黃度淵이 조선 말기에 한국에 소개한 이후, 李圭峻은 扶陽論을 바탕으로 何首烏와 人蔘을 군약으로 하는 景岳의 何人飲을 여러 처방을 결합하여 다양하게 운영하였고, 李濟馬는 체질 이론에 입각하여 何首烏를 虛證의 癆疾을 치료하는 少陰人 補藥으로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당시의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새로운 이론이나 치료 기술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았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Reference

1. Chen NZ. Shennongbencaojingdu. Fujian. Fujian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2007.
陳念祖. 神農本草經讀. 福建. 福建科學技術出版社. 2007.
2. Dept. of Sasang Medicine of Korean Medicine in Korea. Sasang Medicine. Seoul. Jipmundang. 1997.
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 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1997.
3. Feng HR. Zhonghuayifangjingxuancidian (上). Shanghai. Shanghai Science and Technology Literature Publishing House. 1998.
彭懷仁主編. 中華醫方精選辭典(上). 上海. 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8.
4. Lan M. Zhennanbencao. Yunnan. Yunnan People's Publishing House. 1976.
蘭茂. 滇南本草. 雲南. 雲南人民出版社. 1976.
5. Lee WS. Sinbangsinpyeon. 서울. Daeseonguihaksa. 2001.
李元世. 新方新編. 서울. 大星醫學社. 2001.
6. Lee WS. Uigamjiongmaebaekbyeongchonggual. Seoul. Daeseonguihaksa. 2001.
李元世. 醫鑑重磨百病總括. 서울. 大星醫學社. 2001.
7. Li SZ. Bencaogangmu(上). Beijing. People's Health Publishing House. 2002.
李時珍. 本草綱目(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8. Ling H. Bencaohaili. Beijing.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ublishing House. 1982.
凌奂. 本草害利.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2.
9. Liu RJ. Bencaoshujiaozhu. Beijing.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ublishing House. 2005.
劉若金. 本草述校注.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5.
10. Ni ZM. Bencaohuiyan. Shanghai. Shanghai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2005.
- 倪朱謨. 本草彙言.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5.
11. Qian J. Jingyandanfanghuibian. Beijing.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ublishing House. 1988.
錢峻. 經驗丹方彙編.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8.
12. Shi W, Yan J, Hong W. Depeibencao. Shanghai. Shanghai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2000.
施雯, 嚴潔, 洪煒. 得配本草(中國醫學大成績集8).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13. Sun YK. Chishuixuanzhu. Seoul. Daeseongchulpansa. 1995.
孫一奎. 赤水玄珠(四庫全書34). 서울. 大星出版社. 1995.
14. Whang DY. Bangyakhappyeon. Seoul. Haengrimchulpansa. 1986.
黃度淵. 方藥合編. 서울. 杏林出版社. 1986.
15. WHO. World Malaria Report 2018. Geneva. WHO. 2018.
16. Wuyuerhuazi. Rehuazibencao-Shubencao. Anhui. Anhui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2005.
吳越日華子. 日華子本草·蜀本草. 安徽.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17. Yao L. Bencaofenjing. Shanghai. Shanghai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89.
姚瀾. 本草分經.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18. Zhang JB. Jingyuequanshu. Seoul. Beopinmunwhasa. 2007.
張介賓. 懸吐註釋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19. Zhang L. Benjingfengyuan. Beijing. China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ress. 1996.

- 張璐. 本經逢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20. Zhou Y. Bencaosibianlu. Beijing, People's Health Publishing House. 1982.
周巖. 本草思辨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21. Kang HJ. A Study on the Kind and Cause-Mechanism of Malaria.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2013. p.44.
姜孝振. 瘧疾의 種類와 病因病機에 대한 考察.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3. p.44.
22. Lee JC. A Study of Hwang Doyeon's Medical Thought through Uijongsonik.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2017. p.101.
이진철. 醫宗損益을 통해 살펴본 황도연의 의학사상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2017. p.101.
23. Liang L, Zheng JS, Zhao ZZ. Bencao Literature investigation of Polygonum multflorum. China Journal of Chinese Materia Medica. 2016. 41(23). p.4459.
梁鸞, 鄭金生, 趙中振. 何首烏考辨. 中國中藥雜誌. 2016. 41(23). p.4459.
24. Wang QM. 17 Observation-based Case Report about Treatment of Malaria. Guangdong Medicien(TCM ver.). 1964. 2(4). pp.31-32.
王啓明. 何首烏治療瘧疾17例觀察報告. 廣東醫學(祖國醫學版). 1964. 2(4). pp.31-32.